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96



Contents



※ 2025.09.11.(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9.04.~2025.09.10.)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해상풍력, 탄소중립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2025.09.04)	1
-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예산 증액에도 기업 수요 충족에 역부족(2025.09.04)	1
- 환경부, 건설·농업기계 전동화 과제 토론회 개최(2025.09.04)	2
- 전남도, COP33 유치 및 탄소중립 의지 강화(2025.09.04)	2
- 경기도와 네이버, 탄소중립 위한 파트너십 발표(2025.09.04)	2
- 의왕시의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환경교육 조례안 발의(2025.09.04)	3
- 광주시, 국내 최초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시행 인증(2025.09.04)	3
- 인천 동구, '찾아가는 환경교실'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2025.09.04)	4
-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 예고(2025.09.04)	4
- 경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출범으로 실천 선도도시 조성(2025.09.04)	4
- 완주군의회, '분산에너지 1차 포럼' 개최(2025.09.04)	5
- 인천시 '탄소중립 분뇨압송시스템', 성과 부진으로 난항(2025.09.04)	5
- 포항 포럼, "수소환원제철소 성공이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2025.09.04)	5
■ AI 분야	6

- 해수부 이전 받은 부산, AI 산업 국비 지원에서 소외 우려 심화(2025.09.04) 6
- 정부, '산업 AI 국제인증'으로 국내 AI 제품 해외 진출 지원(2025.09.04) 6
- 산업AI 데이터 전처리 위한 산학연 협의체 '네트워크' 출범(2025.09.04) 7
- APEC 연계 기후테크 서밋, AI와 기후테크 결합 방안 논의(2025.09.04) 7
- 창녕군, 복지등기·AI안녕살피미 연계로 지역 돌봄체계 강화(2025.09.04) 7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8

■ 탄소중립 분야 8

- 환경협,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 동시 달성을 위한 7대 과제 제시(2025.09.04) 8
- 산림조합중앙회, 유아·청소년 대상 탄소중립 숲체험 교실 운영(2025.09.04) 9
- 한국지역난방공사-경남에너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 협약 체결(2025.09.04) 9
- 의왕도시공사, 옥상정원 농산물 기부로 탄소중립 및 나눔 실천(2025.09.04) 9
- 화성시환경재단,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2025.09.04) 10

■ AI 분야 10

- 환경부, '야생조류 AI 표준행동지침' 개정으로 현장 대응 강화(2025.09.04) 10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AI+X 아카데미 사업' 본격 추진(2025.09.04) 11
- 남부발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착수(2025.09.04) 11
- 강원혁신센터, 디지털 헬스케어 및 온디바이스 AI 세미나 개최(2025.09.04) 11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2

■ 탄소중립 분야 12

- 현대글로비스와 SK가스, LNG 연료 공급망 구축으로 탄소중립 협력(2025.09.04)12
- 동의대 새마을동아리, 어르신 대상 탄소중립 체험교실 운영(2025.09.04)13

■ AI 분야 13

- 삼성물산, 시니어 특화 AI 동반자 로봇 실증 시작(2025.09.04)13
- 카카오그룹, 창사 이래 첫 그룹 단위 신입 공채로 AI 인재 확보(2025.09.04)14
- 핀다 박흥민 공동대표, 디지털 전환 및 AI 활용 촉진 공로로 장관 표창 수상(2025.09.04) 14
- 에코프로, 'Play AI, Fly EcoPro' 캐치프레이즈로 AI 경영 혁신 가속화(2025.09.04) 14
- 한국엔컴퍼니그룹, 카이스트와 'AI 미래혁신센터' 설립 위한 산학협력 강화(2025.09.04) ..15
-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상 가능성 모색(2025.09.04)15
- SK하이닉스, 차세대 'High NA EUV' 노광장비 도입으로 AI 메모리 주도권 강화(2025.09.04) 16
- 카카오, 23일 '이프 카카오'에서 신규 AI 서비스 공개 예정(2025.09.04)16
- 모티프테크놀로지스, AMD GPU 기반 AI 모델로 빅테크에 도전(2025.09.04)16
- 코스맥스, AI 자회사 '아트랩' 흡수합병으로 뷰티테크 내재화 가속(2025.09.04)17
- 제1회 산업 AI 엑스포, 산업 현장을 바꾸는 혁신 AI 기술 선보여(2025.09.04)17
- 이마트, AI 도입으로 점포 운영 효율성 및 고객 경험 혁신(2025.09.04)17
- 국립부경대 교원창업기업 '팀리부뜨', 국제 AI 대회 2년 연속 우승 쾌거(2025.09.04) 18
- KAIST, 글로벌 유니콘 로봇 기업 육성을 위한 '로봇 밸리' 조성 착수(2025.09.04)18
- 화천정보산업고, '강원인공지능고'로 전환하며 마이스터고 지정(2025.09.04)19
- 경북대와 SL, AI·빅데이터 분야 우수 인재 양성 위한 협약 체결(2025.09.04)19

- 송실대,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 선정으로 AI-바이오 연구 거점 도약(2025.09.04) 19
- 중국 전승절 열병식, AI 드론 등 첨단 무기 대거 공개하며 군사굴기 과시(2025.09.04) ... 20
- 중국의 AI 굴기, 한국에 혁신 DNA 전면 이식 필요성 제기(2025.09.04) 20
- 생성형 AI의 발전, 청년 고용 시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2025.09.04) 20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상풍력, 탄소중립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2025.09.04) - 대한민국이 AI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진흥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해상풍력은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됨 -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조선, 해양플랜트, 철강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풍력을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잇는 차세대 핵심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킬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해상풍력을 국가의 진정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 대규모 송전망과 같은 전력계통 확충,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실행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예산 증액에도 기업 수요 충족에 역부족(2025.09.04) - 내년도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1.9% 소폭 증가한 11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매년 급증하는 기업들의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2030 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됨 - 올해 해당 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의 총수요는 1780억 원에 달해 내년 예산을 680억 원이나 초과함. 이로 인해 이미 올해 예산의 90%가 소진되었으며, 특히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감축 사업 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임 -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인 만큼, 전문가들은 산업계의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언하고 있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환경부, 건설·농업기계 전동화 과제 토론회 개최(2025.09.04) - 환경부가 제6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는 계기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건설·농업기계 전동화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화석연료 중심 기계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 및 농업기계 전동화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일자리 창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다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동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기 건설·농업기계 산업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지자체	□ 전남도, COP33 유치 및 탄소중립 의지 강화(2025.09.04) - 전라남도가 여수시 및 국회의원 12명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포럼을 통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함 - 국회의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남해안 남중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여수에서의 COP33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선언함 - 김영록 전남지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RE100 산단 등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설명함 □ 경기도와 네이버, 탄소중립 위한 파트너십 발표(2025.09.04) - 경기도와 네이버가 서로 손잡고 도민의 친환경 활동을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네이버 ESG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기후플랫폼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것을 공식 발표함 - 도민이 종이 우편물 대신 네이버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리워드를 지급하고, 해당 리워드를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사회공헌에 참여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경기도는 경기 RE100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폐천부지, 축산 농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 확대에 도비 749억 원을 투입함. 이를 통해 총 19.8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임을 발표함
	□ 의왕시의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환경교육 조례안 발의(2025.09.04)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함. 이는 의왕시를 환경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으로 평가됨 - 해당 조례안은 5년 단위의 체계적인 환경교육 계획수립, 의왕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학교와 사회 전반의 환경교육 지원 강화 등 시민들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함 - 한 의원은 시민참여형 토론회 이후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시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례를 준비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함. 관 주도가 아닌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기대한다고 덧붙임
	□ 광주시, 국내 최초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시행 인증(2025.09.04) - 광주광역시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음. 이는 2023년 광주시가 신청한 정부혁신 '최초' 사례 중 하나로, 전문가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됨 - 광주시는 지난 2008년 4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탄소은행(현 탄소중립포인트제)'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왔음 - 제도 시행 단 6개월 만에 약 2만 가구가 참여하여 5만 7천 킬로그램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상을 받으며 선도적 역할을 인정받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인천 동구, '찾아가는 환경교실'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2025.09.04) - 인천광역시 동구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생활 속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하반기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중심으로 약 5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이어가며, 주민 20명이 참여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구청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환경교육 특강'도 함께 개최할 예정임 - 김찬진 동구청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말함
	□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 예고(2025.09.04) - 전남 구례군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2025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흙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라는 주제 아래 흙의 가치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임 -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약선셰프의 텃밭'에서는 국내 1호 푸드테라피스트 김연수 셰프가 직접 지역 특산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 요리를 시연하여, 건강한 흙에서 자란 농산물의 소중한 가치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 - 또한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줄리안 쿤타르 등 국제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흙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글로벌 시민 토크쇼'도 비중 있게 진행될 예정임
	□ 경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출범으로 실천 선도도시 조성(2025.09.04) - 경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공식 현판식과 함께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고,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 - 센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 지역 내 온실가스 통계 산정 및 분석 지원, 시민 대상 홍보 활동 등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3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함
	□ 완주군의의회, '분산에너지 1차 포럼' 개최(2025.09.04) - 완주군의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가 '분산에너지 1차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분산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완주군 내 지역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함 - 이번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의 기본소득적 특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 아래,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큰 관심을 모음 - 심부건 위원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분산에너지 모델이 완주군의 에너지 자립을 넘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의회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함
	□ 인천시 '탄소중립 분뇨압송시스템', 성과 부진으로 난항(2025.09.04) - 인천시가 204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탄소중립 분뇨압송시스템'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태양광 설치 부재와 번거로운 작업 방식 때문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임 - 당초 계획대로 분뇨수집 차량 160대 전체에 설치될 경우 연간 234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태양광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 전기식 전환에 그치며 감축 효과가 매우 미미함 - 시는 2023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해 8대 설치에 그쳤으며, 올해는 신청이 한 건도 없는 상황임. 시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입차주들이 번거로운 조작 때문에 설치를 꺼리고 있음
	□ 포항 포럼, "수소환원제철소 성공이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2025.09.04) - '2025 탄소중립 & 환원제철 포항포럼'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소의 성공적인 건립이 국가 탄소중립 목표 성취의 핵심 과제라는 점이 강력하게 강조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이해학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 '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려는 노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역설함 - 유성찬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환원제철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탄소중립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 모델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수부 이전 받은 부산, AI 산업 국비 지원에서 소외 우려 심화(2025.09.04) -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인 AI 분야 국비 예산 배정에서 부산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AI 부산 홀대론'이 불거짐. 호남권에 대규모 AI 예산이 반영된 것과 비교해 초라한 수준에 그쳐 지역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부산시는 내년도 AI 사업으로 정부에 신청한 신규사업 4건이 모두 탈락했으며, 총 103억 6000만 원을 유치하는 데 그친 반면, 호남권은 총 1856억 원, 경남은 420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함 -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내세우면서,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 육성 지원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정부, '산업 AI 국제인증'으로 국내 AI 제품 해외 진출 지원(2025.09.04) - 정부가 글로벌 AI 규제 강화 추세에 발맞춰 '산업 인공지능(AI) 국제인증' 제도를 통해 국내 AI 제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AI국제인증포럼 총회를 개최함 - 포럼에서는 신규 '산업 AI 국제인증' 시험·평가기관 7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이 진행됨. 이들 기관은 AI 시스템의 성능, 품질, 신뢰성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평가를 담당하게 됨 - 최근 EU의 'AI ACT' 등 AI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요구하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제표준 기반 인증체계의 필요성이 커짐. 이번 신규 기관 지정으로 전국적인 인증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AI 데이터 전처리 위한 산학연 협의체 '네트워크' 출범(2025.09.04) -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산업 AI 데이터 전처리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함. 이는 제조 현장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됨 - 산업AI 데이터 전처리(IDP)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고 가공하는 핵심 절차로, 데이터 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산업 현장에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민병주 KIAT 원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데이터의 전처리 자동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AI 기반의 제조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 APEC 연계 기후테크 서밋, AI와 기후테크 결합 방안 논의(2025.09.04) -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주에서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함. 이번 행사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되어,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을 통한 기후위기 해결 시스템 전환을 논의함 -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 VC, 대기업, 정책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함. AI 반도체 유니콘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가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기후위기 동향, 자본의 흐름, 지원정책 등이 논의될 예정임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서밋을 계기로 APEC 회원국 간 공동 연구, 투자, 인재 교류가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함
지자체	□ 창녕군, 복지등기·AI안녕살피미 연계로 지역 돌봄체계 강화(2025.09.04) - 창녕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등기우편, 안부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핀 우편서비스, AI 안녕살피미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촘촘한 지역돌봄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복지등기우편'은 집배원이 위기가구에 복지 정보를 전달하며 수집한 기초정보를 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기 발굴에 기여하고,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고립 가구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함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AI 안녕살피미'는 AI 기반 모니터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꾸준한 돌봄을 지원함. 이를 통해 신속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함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한경협,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 동시 달성을 위한 7대 과제 제시(2025.09.04) - 한국경제인협회가 장기화된 소비 위축과 건설 투자 부진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내수활성화를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발표함. 노후 소비재 및 설비 교체가 핵심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 한경협은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인 '이구환신'을 주목하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고도화와 녹색 전환을 동시에 이루는 이 정책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함 - 7대 과제에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의 운영 기간 연장 및 대상 품목 확대,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 그리고 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유아·청소년 대상 탄소중립 숲체험 교실 운영(2025.09.04) - 산림조합중앙회가 오는 29일까지 전국의 유아 및 청소년 330명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의 탄소중립 중요성에 관한 이론 교육과 다채로운 산림체험교실을 함께 운영한다고 밝힘 - 이번 체험교육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복권기금(녹색자금)으로 진행되는 '2025년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산림의 탄소중립 기능 이론교육과 묘목 심기, 목공 체험 등으로 구성됨 - 최창호 회장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산림의 가치를 알리는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목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산림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한국지역난방공사-경남에너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 협약 체결(2025.09.04)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가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와 함께 탄소 중립의 실질적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상생 업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함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남에너지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에너지 신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임 - 또한, 두 기관은 민관공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ESG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함
지방기관	□ 의왕도시공사, 옥상정원 농산물 기부로 탄소중립 및 나눔 실천(2025.09.04) - 의왕도시공사가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직접 정원을 조성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지역 아동보육시설에 기부하며 탄소중립과 이웃 사랑의 상생 가치를 동시에 실천하여 주목받고 있음 - 공사는 지난 4월 도시농업공동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옥상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5월에 심은 고추와 방울토마토 약 20kg을 최근 수확하여 명륜보육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함 - 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환경 보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상징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함
	□ 화성시환경재단,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2025.09.04) - 화성시환경재단이 시민의 탄소중립 정책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실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5 화성에서 ON: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함 - 이번 경진대회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도입을 위해 시민의 시각에서 참신하고 논리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재학 또는 재직 중인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음 - 참가 신청은 10월 1일까지 전자메일로 가능하며, 정승호 대표이사는 시민들의 반짝이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모아 화성특례시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환경부, '야생조류 AI 표준행동지침' 개정으로 현장 대응 강화(2025.09.04) - 환경부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야생조류 AI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함. 현장 인력의 인체감염 예방수칙 보완에 중점을 둠 - 개정된 지침은 AI 현장 대응 인력의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AI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최근 해외의 인체감염 사례와 국내 야생포유류 감염 사례에 따라, 격리 시설을 갖춘 야생동물구조센터가 AI 의심 개체를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짐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AI+X 아카데미 사업' 본격 추진(2025.09.04)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도내 지역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AI+X 아카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함 - 이 사업은 도내에서 AI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AI 솔루션 연계와 전문 컨설팅, 그리고 실무 중심의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김연상 용기원장은 경기도의 대표적 기반 산업인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도내 주요 산업으로 AI 융합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경기도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 남부발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착수(2025.09.04) - 한국남부발전이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연말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된 인공지능(AI) 학습용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 이에 따라 연말까지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블레이드 균열, 패널 파손 등 설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정상 및 비정상 상태의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임 - 이번에 구축되고 개방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는, 관련 AI 인프라 연구개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기관	□ 강원혁신센터, 디지털 헬스케어 및 온디바이스 AI 세미나 개최(2025.09.04)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18일 원주에서 'On-Device AI Healthcare Summit 2025'를 개최함.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온디바이스 AI 분야의 최신 동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향을 조망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됨 - 세미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공동 주최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실사례,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기술과 산업 전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가 있을 예정임 - 패널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온디바이스 AI 기반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전망'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청중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임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현대글로비스와 SK가스, LNG 연료 공급망 구축으로 탄소중립 협력(2025.09.04) - 현대글로비스가 SK가스와 '한국 동남권 기반 LNG 선박연료 공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함. 이를 통해 저탄소 자동차운반선(PCTC) 선대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LNG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탈탄소 전략을 강화할 예정임 - 현대글로비스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8년까지 30척 이상의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을 확보할 계획임. LNG는 기존 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20% 이상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음 -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기항지 중 연료 수요가 가장 큰 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 안정적인 LNG 공급 기반이 마련됨. 이를 통해 극동에서 출발하는 선박들의 안정적인 급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동의대 새마을동아리, 어르신 대상 탄소중립 체험교실 운영(2025.09.04) - 부산 동의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옴네스'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중요한 일환으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함 -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됨 -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환경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힘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삼성물산, 시니어 특화 AI 동반자 로봇 실증 시작(2025.09.04)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니어 주거 공간에 특별히 최적화된 '홈 AI 컴패니언 로봇'의 실증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스마트 주거 서비스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이 로봇은 정서적 교감을 돕는 말벗 역할부터 음성 호출 및 IoT 기기 제어, 응급 상황 알림 등 집사 역할, 그리고 복약 알림과 웨어러블 기기 연동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간호사 역할까지 수행하는 복합 기능형 서비스 로봇임 - 삼성물산은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스마트 공간 솔루션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한편, 로봇을 활용한 혁신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니어 주거 환경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카카오그룹, 창사 이래 첫 그룹 단위 신입 공채로 AI 인재 확보(2025.09.04) - 카카오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테크, 서비스, 비즈니스 등 전 직군에 걸쳐 그룹 단위의 대규모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이번 공채는 미래 성장을 이끌 AI 인재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함 - 이번 공채에는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등 6개의 주요 그룹사가 참여하며, 지원자는 이 중 하나의 회사만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다양한 AI 기술을 접하며 성장한 첫 세대인 청년들이 남다른 질문으로 창의적인 답을 찾아낼 줄 아는 'AI 네이티브' 인재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냄
	□ 핀다 박홍민 공동대표, 디지털 전환 및 AI 활용 촉진 공로로 장관 표창 수상(2025.09.04) - 대출 비교 추천 서비스 핀다의 박홍민 공동대표가 '2025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음 - 박 대표는 2015년 핀다를 창업하여 금융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누적 13조 원이 넘는 대출을 중개하며 대출 시장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음 - 박홍민 공동대표는 이번 수상을 통해 핀다만의 차별화된 기술과 노력이 인정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AI를 접목시킨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힘
	□ 에코프로, 'Play AI, Fly EcoPro' 캐치프레이즈로 AI 경영 혁신 가속화(2025.09.04) - 에코프로가 사내 공모전을 통해 'Play AI, Fly EcoPro'를 AI 캐치프레이즈로 최종 선정하고,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영 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음 - 올해 AI혁신실을 신설한 에코프로는 AI 기술을 실제 업무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입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제조 및 연구개발 부문에서 각각 30%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함 - 송호준 대표는 AI가 경영혁신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강조하며, 특히 제조, 품질, 연구개발 영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임직원들에게 약속함
	□ 한국엔컴퍼니그룹, 카이스트와 'AI 미래혁신센터' 설립 위한 산학협력 강화 (2025.09.04) -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카이스트와 함께 'AI 미래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4기 산학협력 협약식을 진행함. 이는 그룹의 디지털 혁신 방향을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함 - 양측은 지난 3기까지의 협력을 통해 생산 공정 최적화, 타이어 성능 예측 등 제조·설계·품질 전반에서 다양한 AI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음 - 새롭게 출범하는 'AI 미래혁신센터'는 기존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영역의 AI 혁신을 고도화하고, 적용 범위를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장하며 직원들의 AI 전문성을 높여 나갈 종합적인 방침임
	□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상 가능성 모색(2025.09.04) -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차세대 NPU '리벨 퀴드'를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던짐.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임 -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최대 화두는 AI 기술의 급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문제임.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GPU의 과도한 전력 소모를 약점으로 지적하며, 전력 효율을 높인 반도체 개발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다만, 엔비디아가 이미 구축해놓은 압도적인 시장 인프라와 인력 풀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이 단기간에 그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며, 특화된 틈새시장 공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SK하이닉스, 차세대 'High NA EUV' 노광장비 도입으로 AI 메모리 주도권 강화(2025.09.04) -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업계 최초로 양산용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인 '하이 NA EUV'를 이천 M16 공장에 도입함. 이는 현존 장비 중 가장 미세한 회로 패턴 구현이 가능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임 - 이 장비는 기존 EUV 장비 대비 1.7배 더 정밀하게 회로를 형성할 수 있고, 2.9배 높은 집적도를 구현할 수 있음. D램 반도체의 선폭이 10나노 이하로 미세화되면서 더 큰 기술 변혁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 - SK하이닉스는 이 장비를 활용해 HBM을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급성장하는 AI 메모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임. 이를 통해 미래 기술 비전을 실현할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게 됨
민간기업	□ 카카오, 23일 '이프 카카오'에서 신규 AI 서비스 공개 예정(2025.09.04) - 카카오가 오는 23일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AI 대중화를 목표로 한 신규 B2C AI 서비스와 오픈AI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임. 이는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전략임 - 특히 오픈AI와의 첫 협업 결과물인 AI 에이전트 서비스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됨. 또한 15년 만의 카카오톡 개편을 통해 '친구' 탭을 피드형으로 바꾸고 '오픈채팅'에 숏폼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체류 시간 확대를 꾀함 - 카카오는 신규 AI 서비스와 카카오톡 개편을 통해 본격적인 AI 수익화에 나설 계획임. 증권가에서는 AI 사업 성과가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이후 하락한 주가를 반등시킬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함 □ 모티프테크놀로지스, AMD GPU 기반 AI 모델로 빅테크에 도전(2025.09.04) - AI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AMD GPU 단 1장으로 구동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하며 가격과 성능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입증함. 엔비디아 기반 인프라 대비 약 60%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과 운영이 가능함 - 모티프의 AI 모델은 벤치마크 결과 미스트랄, 잼마, 라마 등 글로벌 빅테크의 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텔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함. 허깅페이스 엔지니어 등 해외 AI 커뮤니티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음 - 정부의 독자 AI 모델 사업 최종 선정에는 탈락했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B2B AI 전환(AX) 사업을 통해 매출 기반을 다지고 멀티모달 AI 모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 코스맥스, AI 자회사 '아트랩' 흡수합병으로 뷰티테크 내재화 가속(2025.09.04) -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가 지난해 인수한 AI 피부 진단 솔루션 기업 '아트랩'을 흡수합병하며 기술 내재화에 속도를 냄. 이는 뷰티 산업의 경쟁이 AI, 디바이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동참하는 것임 - 코스맥스는 이번 합병을 통해 아트랩의 기술력과 데이터 자산을 본사 체계로 직접 흡수, 맞춤형 화장품 제도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전략임 - 합병은 단순한 조직 효율화를 넘어, 신제품 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에 맞는 자동화 생산 혁신을 추구하기 위함. AI 혁신 기술이 장기적으로 ODM과 OBM 사업 전반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됨
	□ 제1회 산업 AI 엑스포, 산업 현장을 바꾸는 혁신 AI 기술 선보여(2025.09.04) -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제1회 산업 AI 엑스포'에서 산업 현장을 혁신하는 다양한 AI 기술이 공개됨. HD현대, LG CNS, 엔비디아 등 국내외 약 100개 기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룸 - HD현대는 현장 용어와 사투리까지 3개 국어로 통역하는 조선업 특화 AI 기술을 선보여 주목받음. 이는 베테랑 작업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됨 - 또한 AI를 활용한 예지 보전 기술, 산업 안전 솔루션,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전시됨. 정부는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제조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임을 밝힘
	□ 이마트, AI 도입으로 점포 운영 효율성 및 고객 경험 혁신(2025.09.04) - 이마트가 점포 현장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음. 직원의 경험에 의존하던 업무 방식을 과학적 예측 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AI 신선 마크다운' 시스템은 재고와 영업시간을 분석해 수산물, 육류 등의 최적 마감 할인율을 제시함. 이를 통해 과도한 할인을 방지하고 폐기 상품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둠 - 점포 내 행사 안내 방송도 기존의 성우 녹음 방식 대신 AI 음성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임. 또한 사내 전용 AI 챗봇을 도입해 상품 기획 등 내부 업무 혁신도 함께 꾀하고 있음
대학교	□ 국립부경대 교원창업기업 '팀리부뜨', 국제 AI 대회 2년 연속 우승 쾌거 (2025.09.04) - 국립부경대학교 최성철 교수가 설립한 교원창업기업 '팀리부뜨'가 제3회 SciCap Challenge 국제 AI 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함 - 이 대회는 과학 논문에 포함된 복잡한 시각 자료를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설명문을 생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팀리부뜨는 퀄리티 트랙과 정량평가 트랙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함 - 이번 대회 우승으로 검증받은 문서 인식 AI 기술은 생성형 AI 기반 무역 플랫폼 'askyour.trade 2.0'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복잡한 무역 서류를 자동 처리하여 무역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KAIST, 글로벌 유니콘 로봇 기업 육성을 위한 '로봇 벨리' 조성 착수(2025.09.04)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로봇 기업을 육성하고, 로봇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표로 '로봇 벨리'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섬 - 이 사업은 단순 자동화 기계를 넘어 인간과 공간, 역할, 감정을 공유하는 협력적 동반자 로봇인 '인간친화형 로봇(HFR)'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아, 기술개발부터 창업, 성장,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임 - KAIST와 지역의 로봇 분야 선도 기업들이 핵심적인 공통 요소기술을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공유하여, 스타트업들이 고객 수요에 맞는 로봇 제품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화천정보산업고, '강원인공지능고'로 전환하며 마이스터고 지정(2025.09.04) - 화천정보산업고가 두 번의 도전 끝에 마이스터고로 최종 지정되어, '강원인공지능고'로 새롭게 전환됨. 이는 AI와 사물인터넷(IoT) 융합사업을 선도할 미래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AI사물인터넷과' 단일 학과 체제로 운영되며, 학년당 48명씩 총 144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육성할 계획임. 기숙사 증축 전까지는 학년당 2학급 체제로 우선 운영될 예정임 - 학교는 AI 소프트웨어 개발, 임베디드 하드웨어 설계 등 3가지 전공 코스를 운영하고, 더존비즈온 등 232개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경북대와 SL, AI·빅데이터 분야 우수 인재 양성 위한 협약 체결(2025.09.04) - 경북대학교가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SL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AI·빅데이터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함 - 양 기관은 'SL 채용예정자 KDT AI·BigData 부트캠프'를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임. 교육은 AI·빅데이터 모델링 학습과 임베디드·자율주행 기술 중심의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으로 구성됨 - 정태욱 경북대 데이터융복합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 교육과 기업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힘
	□ 숭실대,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 선정으로 AI-바이오 연구 거점 도약(2025.09.04) - 숭실대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도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G-LAMP)'에 최종 선정됨. 향후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세계적 수준의 연구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임 - 숭실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리·통계과학·인공지능' 부문에서 AI 대학 특성화를 기반으로 기초과학의 초혁신을 선도하는 융합연구 허브를 구축할 방침임. AI 기반 의료 빅데이터 분석 등을 주요 과제로 수행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이번 사업을 통해 학부생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젊은 연구 인력의 주도적인 연구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수한 학문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함
해외	□ 중국 전승절 열병식, AI 드론 등 첨단 무기 대거 공개하며 군사굴기 과시(2025.09.04) -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미국을 겨냥한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대거 공개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함.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과 함께 육해공 '핵 3축 체계'도 처음으로 선보임 - '괘 킬러'로 불리는 대함미사일 DF-26D와 사드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DF-17 등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됨 -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S와 함께 유인 항공기와 협동 작전이 가능한 AI 드론 패이훙-97도 공개됨. 이는 중국이 최신 군사기술을 보유한 강국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중국의 AI 굴기, 한국에 혁신 DNA 전면 이식 필요성 제기(2025.09.04) - 중국 AI 기업들의 빠른 기술개발과 상용화 속도가 'AI 차이나 쇼크'로 다가오고 있음. 거대하면서도 유연하고 빠른 중국 기업들은 권위주의 체제의 이점까지 활용하며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음 -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국가가 미래 패권을 지배할 것이 확실한 가운데, 중국은 AI 기술을 산업, 사회 전 분야에 접목하는 'AI플러스' 전략으로 응용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필자는 한국이 과거 '발전국가'에서 이제 '혁신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함. 대통령부터 관료, 산업계까지 혁신 마인드로 무장하고, 규제 개혁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등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기타	□ 생성형 AI의 발전, 청년 고용 시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2025.09.04) - 챗GPT 등 생성형 AI의 등장이 산업 전반을 뒤흔들며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고용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AI 혁신은 과거 기술혁신과 달리 모든 산업에 동시에 침투하고 있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필자는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며 높은 전문성을 요구해, 다수의 청년은 실업과 불평등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옴 - 이에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설계할 것인가'라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기본소득제 논의, 평생 학습 체제 전환, 그리고 '일'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는 사회적 합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